

20세기 전반기 회화와 한국적 요소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 캐주얼 웨어를 중심으로 -

전 현 경 · 송 미 령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의상학과

A Study on Fashion Design Applied
Early 20th Century Art and Korean Factor-
-focusing on Casual Wear-

Hyunkyung Jeon and Miryung Song
Dept. of Clothing, Dongduck University

Abstract

Various art trends of the 20th century that contributed to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abstract art had showed the transition from the convention of mere representation of the object to the formative sensitivity emphasizing self-expression. Noticing that such trends had influenced the fashion industry to move toward a free and individualized style, this study attempts to express the formative way from the existing art to wear. especially, based on early 20th century paintings, 5 casual wears were made which applied korean materials and silhouettes that are functional, simple and show traditional korea beau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a solution to expand the world market by producing dresses utilizing our own tradition that can be distinguished in the global market and that derive inspiration from the formative of the sensitivity of the paintings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It also aims to let national economy as a high-added industry.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xpression method and element of various styles of art such as Fauvism, Expressionism and Cubism, during the period of transition to abstract art, clearly presented the direction toward the artistic liberation and made possible a new formative artistic expression of dress in the early years of the 20th century. Their ideas inspired the dress designers of the time with a reformative and creative sense of fashion and have great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a new era of uniqueness and individuality.

Second, the color and the simplicity of form of the early 20th century paintings are suitable for utilizing a motive of functional dresses and express unique and concise modern beauty.

Third, it was confirmed that utilizing our tradition in contemporary dress can be a significant method of creation in which the uniqueness and creativity of Korean dress can be expressed, distinguishing it on the global scene, as well as inspire the originality and pride of our culture.

Fourth, a possibility has been discovered. It is the functionality and uniqueness of aesthetic expression techniques of the contemporary arts that can contribute to the fashion of tomorrow, by searching a modern fashion which was affected by the past and also by taking a look at the trend of modern fashion as the same field

as casual wear.

Key words: early 20th century art, casual wear, korean materials and silhouettes.

I. 서론

패션은 건축, 문화, 음악, 미술, 조각과 같이 특별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 하에서 발전된 예술형태이며 그것을 창조해내는 사회의 영감과 욕구를 반영한다¹⁾. 특히 인류의 정신활동을 나타낸 문화사의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 패션의 창의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각 미술양식에서 나타났던 조형상의 형태 및 색채는 그 시대 패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공통된 표현방법을 보이고 있다.

현대의 패션 산업은 자신의 내재적인 정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여 개성화를 지향하는 감각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고, 의복을 하나의 예술매체로서 자신의 정신세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조형예술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복식사가들이 역사상의 의상스타일과 동시대 혹은 전시대의 미술과의 관계를 연구한 예는 수없이 많으며 기존의 미술사조와 서양복식의 양식사적 연구들 대부분이 현대의상 디자이너들의 의상 작품에 나타난 예술 사조의 영향에 대한 분석 고찰 등 이론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 분야뿐 아니라 실질적인 의상 디자인개발을 위해 현대 의상에 표현된 20세기 전반기 회화를 중심으로 각 미술사조의 특성과 그 특성이 그 시대의 의상과 현대의 의상에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하는 관계를 파악하여, 20세기 전반기 회화의 창조적 미술양식으로서의 특징인 화려한 색채와 형태의 단순성을 의상의 모티브로 재구성하여 한국적인 소재와 실루엣을 가미한 캐주얼 웨어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한국적 현대 의상디자인 창조에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세계시장에서 미래복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세기초 회화의 특징은 추상회화로의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자유롭고 독창적인 스타일로 발달해 왔

다는 것이다. 이러한 회화의 경향은 현대의상에도 영향을 주어 자유롭고 개성 있는 의상으로의 혁신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전반기의 회화, 특히 기하학적 추상까지를 연구 범위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이론적 배경은 동·서양의 문헌과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참조로 하였으며, 화가의 작품은 그들의 대표작을 문헌, 작품집, 슬라이드 등을 통해 고찰하였다.

II. 20세기 전반기 미술사조와 패션디자인

1. 20세기 전반기 회화의 일반적 고찰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전반기 회화의 여러 운동을 살펴보고 대표작가와 그들의 작품을 고찰하여 이를 응용한 패션디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야수주의

야수주의(1899~1908)는 순수하고 찬란한 색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대담한 원색의 사용은 감성을 해방시킨다는 표현의 혁신을 가져왔으며 그것은 인간의 감정을 의계와의 관계에서 해방시켜 본능적인 충동에 의해 대상을 표현하는 방법을 낳았다²⁾.

당시의 복식에 나타나는 야수주의 회화의 특성은 순수성으로의 지향, 화면과 대상의 단순화, 색채의 원색 사용과 대비이며 이를 가장 많이 반영한 디자인으로 뿔 뺨와레(Paul Poiret, 1879~1948)의 Empire Tunic style, Hobble Style, Minaret Style, Harem Pantalon Style을 들 수 있다. 즉 복식예술의 순수화의 지향은 꼴셋을 추방하고 단순화의 의지는 장식을 피한 심플한 선의 경제화로 직선적인 유연한 선을 추구하였으며 색채면에서도 아르 누보의 흐릿한 파스텔 톤에서 과감히 벗어나 야수적인 강한 원색과 원색대비 등을 사용하였다³⁾. (그림 1) 그는 또한 에르페(Erte)와 라울 뒤피(Raul Dufy, 1877~1953) 등의 화가와 밀

1) Marilyn J.Horn, Lois M.Gurel,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1), p.341.

2) 오광수, *서양근대회화사*, (서울: 일지사, 1976), p.37.



<그림 1> Empire tunic style, 1912.

접한 관계를 맺으며 예술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야수파 화가인 라울 뒤편과 입체파 화가인 소니아 들로네(Sonia Delaunay, 1885~1979)에게 그의 복식을 위한 텍스타일 디자인을 의뢰하였으며 1906년에는 라울 뒤편과 함께 전시회를 갖기도 하였다. 그 예로서 뒤편이 그의 그림의 특색인 경쾌하고 화려한 색조로 텍스타일을 디자인하고 뽀뜨와레가 제작한 의상이 목격된다.

이시기의 모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중의 하나가 발레인 데 뽀뜨와레 또한 레옹 박스트의 영향을 받아 오리엔탈리즘의 튜닉(tunics), 터번(turbans), 하렘 스커트(harem skirts)를 발표하기에 이른다³⁾. 따라

서 그는 이국적 실루엣과 분위기를 위해서 다양하고 새로운 소재를 요구하게 되었고 동양의 화려한 색조와 현대 회화의 원색충격을 조화시켜 새로운 프린트 직물(textile)을 탄생시켰다. 즉 이러한 색채의 새로운 등장과 화가들의 텍스타일 디자인에의 참여로 의상 디자이너들에게 직물생산에 예술적인 시도뿐만 아니라 직물생산에 상당한 활기를 불러 일으켰으며 근대 복식에서 현대 복식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대 패션에서 보여지는 야수주의의 영향을 살펴보면 존갈리아노는 당시에 유행했던 마나레 스타일을 재현한 이국풍의 드레스를 1998년에 발표하였고(그림 2), 크리스찬 라코르와나 배르사체 등도 색채면에 있어 많은 활용을 했다.

2) 독일 표현주의

표현주의(1905~1914)는 하나의 양식이 아니라 되풀이되는 경향으로 미술가의 내면세계를 외적 가치로 전환하여 표출하고 사물이나 대상을 주목하기보다는 새로운 시대상황을 맞이하는 인간의 내적 갈등을 그리고자 한 주관주의적 미술이었고, 색은 이를 표현하는 방법이었다.

표현주의 예술운동과 때를 같이한 20세기 초반의 복식에서 표현주의적 요소로서 파악되는 것은 그 시



<그림 2> 존갈리아노의 미나레스타일 드레스, 1998.



<그림 3> 현대적 Military look, 1994.

3) 주명희, “야수주의의 영향을 받은 현대 의상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p.51.

4) Nunn, Joan(1984), *op. cit.* p.172.

대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며 변화하는 미의식을 적극 수용하여 그 시대의 보편적인 스타일 보다 앞서 나아가는 아방가르드적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비요네, 뿌아레와 같이 실루엣이나 패턴구성에서의 과격적 형태로서 나타나기도 하며 보이쉬 스타일이나 가르손느 스타일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사회 참여적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 사회간의 문화적 교류와 그 흐름의 경향을 적극 반영한 복식과 변형과 왜곡이라는 조형 기법상의 변화를 통한 구조주의적인 의상으로 나타났다.

20세기초에 여성복에 대두된 개혁의상의 주요 흐름은 가르손 룩, 밀리터리 룩, 란제리 룩으로 분류할 수 있고 특히 1920년대 개혁의상으로 나타난 밀리터리 룩은 현대 디자이너에게 훌륭한 디자인 요소가 되며 이들의 기능적인 성격과 표현성은 현대의상 디자인의 요구와 잘 부합되어 꾸준히 애용되고 있다. (그림 3)

3) 입체주의

1907~1908년 파리에서 일어난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예술운동의 하나이다.

20세기 미술사의 전환점을 이룬 입체주의는 르네상스 이래의 사실적 회화전통을 혁신시켜 추상미술의 길을 열고, 후기 인상주의 화가인 세잔느의 새로운 방법에 영향을 받아, 전통적인 원근화법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 즉 이차원의 평면 위에 삼차원의 일루전을 주는 방법을 이룬 것으로 파블로 피카소, 조르주 브라크, 후안 그라스 등이 중심인물이었다.

당시의 패션에서 보여지는 입체주의의 영향으로는 소니아 들로네의 화려한 색면에 의한 음악적 배열을 나타내는 작품들과 텍스타일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여 자신의 회화를 모티브로 한 무대의상 등을 들 수 있다. 그녀는 시인 이리아자드(Iliazad)에 의해 열린 파티를 위해 ‘원반의 춤추는 여인’(Danseus aux disques)이라는 의상을 만들었다⁵⁾.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입체주의의 영향은 크게 입체주의 회화의 직접적인 적용과 의복 구성에 있어서 입체화로 나눌 수 있다.



<그림 4> Yves saint Laurent, 1988.



<그림 5> Issey Miyake, 1995.

1980년대 이후의 여러 디자이너의 작품에서 피카소와 브라크의 작품을 응용한 디자인들이 보여지는데 브라크의 그림을 정교하게 수놓아 장식하는 식으로 입체주의 작품을 직접 옮겨 놓는식의 디자인이 선보이고 (그림 4) 이세이 미야케의 경우 복식의 형태 자체에서 입체화를 시도, 하나의 조형물로서 형태를 갖추기도 한다(그림 5).

4) 초현실주의

5) Jacques Darmase, *Sonia Delqunay*, (New York:Thomas Y. Crowell, 1971), p.135.

초현실주의는 제1차 세계 대전 직후인 1919년부터 제 2차 세계 대전 발발 직전까지 약 20년간 프랑스를 중심으로 문학, 예술, 정치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일어났던 운동이다.

기존의 예술형식을 부정하고 미지의 영역인 무의식의 세계에서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을 추구하였던 초현실주의는 제 1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후 정치와 국제적 긴장, 재정적 혼란과 관심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해방시키기 위해 환상적인 것을 원하는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생겨났다.

초현실주의자들에 대한 대중들의 이목을 가장 많이 받은 스페인 태생의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1904~1989)는 복식에 초현실주의 영향을 강하게 미친 화가이며 '모드에서의 초현실주의자' 엘사 스키타 파렐리에게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감을 주었음은 물론이고 현대 패션 디자이너들의 상상 속에서도 다양한 변형과 해석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현실주의는 다양한 형태와 의미로 현대 복식에 표현되었으며 기존의 획일화된 복식에서 탈피하여 새롭고 전위적인 감각으로 복식의 다양화와 개성화를 가져왔다.

현대의 디자이너 중에는 Karl Lagerfeld가 신체와 악기의 형태를 이용하여 인간과 음악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1996년 발표된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의상은 신체의 한 부분인 입술을 상징화

하여 초현실적인 표현을 하고 있고, thierry Mugler의 앞뒤의 뒤바뀐 재킷 등은 복식의 고정관념이 해체됨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6), Moschino는 현실의 세계를 떠나 환상의 세계로 떠나기 위해 구름을 이용한 드레스에서 의상의 자연 오브제화를 표현하고 있다.

5) 추상주의

추상주의는 1910년 무렵, 유럽 각지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하여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현대의 보편적인 양식이 되었다. 몬드리안과 칸딘스키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며 어떤 특정한 대상없이 느낌의 표현만으로 그림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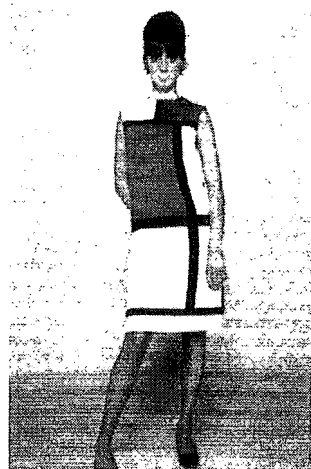
기하학적 디자인의 의상을 제작하였던 소니아 들로네는 추상회화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었는데, 들로네는 강한 색의 추상적 패턴으로 직물디자인을 하였다. 그녀의 직물 디자인의 특징은 사각형, 마름모형, 나선형 등 기하학적 무늬 모양 혹은 예술에서 영감을 얻은 문양과 별모양, 긴 줄무늬모양, 그리고 물결 무늬 모양 등 추상적 디자인으로 표현되었다.

1965년 입센 로랑의 몬드리안 회화를 이용한 원피스도 그 한 예이다(그림 7).

추상회화가 주는 패션에의 영향은 조형예술로써 의 의상의 위치를 재정립할 수 있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 Thierry Mugler, backward suit, 1986.



<그림 7> Yves Saint Laurent, modern dress, 1965.

Ⅲ. 현대 여성복의 캐주얼웨어화 현상

캐주얼웨어는 원래 1890년대 테니스, 골프, 자전거, 수영, 아이스 스케이트, 요트, 사냥 등의 활동시 입혀진 스포츠웨어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스웨터, 치마, 블라우스, 팬츠, 반바지 등 스포츠 관람시 입는 의복을 의미하는 용어로 대중화되었다⁶⁾. 이것이 1960년대 후반 의미가 변화하기 시작해 스포츠 의복의 원래 개념을 바탕으로 이브닝 웨어는 물론 일상복을 위한 패션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 개념은 주로 미국인들의 캐주얼한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 생겨났으며 복식사에 미국인의 큰 공헌으로 인정된다⁷⁾.

19세기 말 파리를 중심으로 한 특수 귀족계층을 위한 Haute Couture의 발달은 1,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사양화 현상을 보이고, 유럽 여러 나라들은 경제적 몰락으로 인하여 여성들의 생활 전선의 참여가 늘어나고 국가 차원의 Haute Couture 활동의 제한으로 패션의 중심이 미국으로 바뀌게 된다. 미국의 패션산업은 유럽과는 대조적으로 서민과 중류층을 위한 Mass Production에 의한 기성복 형태로 발달하게 되는데 사실 캐주얼 웨어의 역사는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에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복과 공업용 재봉기의 발명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기성복의 발달과 동시에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⁸⁾.

특히 이 시기는 자동차의 발달로 일요일이 recreation의 날로 변질되면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고 전기청소기, 냉장고, 세탁기 등이 제조되어 여성들을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여권신장과 여성해방을 가속화 시켰다.

니트웨어, 셔츠, 바지와 스커트는 '40년대 동안 미국에서 중요한 일상복으로 받아들여졌고 전후 유럽에서도 더욱더 약식의 방법과 더불어 바뀌 입을 수 있는 세퍼레이트가 점점 유행하게 되었다. '60년대 등장한 Mary Quant (그림 8)과 앙드레 쿠레지 (그림 9)의 미니 스타일과 우주복 등 영 패션 붐을 타고



<그림 8> Mary Quant, miniskirt, 1967.



<그림 9> White wool minidress, Courreges, 1965.

젊음을 강조하게 되면서 Blue jean같은 팬츠를 즐겨 입게 된다. 대학가에는 Unisex Look이 크게 인기를 얻어 이것이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쳐 남녀노소, 계급의 구별이 없는 평등의식이 의상으로 표현되게 되었다⁹⁾. 이런 1970년대의 남성적인 미를 느끼게 하는 unisex풍의 Easy-to-Wear Boom은 백화점에 유럽 Couture 풍의 High Fashion이 점차 사라지고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의상, 단순하고 기능적인 의상으로 가득 메우게 하였다(그림 10). 미국의 단순하고 편안

6) Charlotte Mankey Calasibetta, ph.D, *Fairchild's Ditionary of Fashion*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 1988), p.545.

7) *Ibid.*, p.545.

8) 정성혜, "미국 스포츠웨어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제 15호, 1990), p.218.

9) Jarnow, Jeannette, *The Changing form of Fashion*, (New York : John Willey and Sons, 1974), p.35.



<그림 10> Unisex uniform for the french, team at the Olympic game.

한 캐주얼웨어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니게 되어 '70년대 이후 미국의 디자이너들은 유럽의 전통적인 High Fashion Designer들을 능가하는 매출액으로 세계의 패션 산업과 Mode에 대해 기능성과 상품성이란 새로운 시각을 부여 우리 일상생활과 같이 호흡하면서 현대의 과학화되고 대형화되는 기술산업으로 정착되었다.

그리하여 스포츠 웨어로 입혀지던 캐주얼웨어가 1968년부터는 세계 패션에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자 우리 나라에서도 1969년부터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IV. 한국적 디자인의 분석

1. 한국적 디자인의 조형적 분석

최근 우리 나라의 패션문화는 국제적인 위치에 이를 정도로 다양화, 고급화되고 5~6년 전부터 우리 나라의 디자이너들이 국제 컬렉션에 참가해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디자이너가 본격적으로 해외 컬렉션에 진출한 것은 김정아를 비롯하여 이신우, 이영희, 진태

옥, 홍미화 등의 유럽 컬렉션, 김동순, 이신우의 동경 컬렉션, 미국에서 발표한 트로아 조 등으로 '90년대 이후가 된다¹⁰⁾. 국제적 무대에서 호평을 받을 수 있는 한국적 디자인의 조형적 요소를 분석하고 한국의 대표적 디자이너들의 작품 경향을 살펴서 디자인의 세계 상품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을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패션의 중심지이며 우리 나라 디자이너가 많이 진출한 파리컬렉션에 출품한 '91년에서 '96년까지의 작품을 중심으로, 디자인의 조형 요소인 형태와 색채, 소재, 장식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형태

컬렉션에 출품된 우리 나라 디자이너의 작품은 대부분 몸에 밀착되기보다는 몸 모양대로 인지되지 않는 의복 우선형¹¹⁾이 대부분이고 주로 A 라인이나 H 라인 실루엣을 이루는 것이 보통이다. 이신우의 경우 절제되고 간결한 라인을 추구하고 (그림 11), 진태옥은 한국적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기 보다 배 이직학 실용성이 있어 대중에게 쉽게 수용되는 장점이 있고 홍미화는 웨이스트를 의식한 바디 피팅스타일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이영희의 디자인은 서양 복식에 한국적 이미지를 주는 다른 한국디자이너들과는 달리 철저하게 한복에 바탕을 두고 한복 바느



<그림 11> 이신우 '91/s collection.

10) 김영자, "해외 컬렉션 작품의 세계상품화를 위한 디자인 탐구", (승의논전 23호, 1999), p.142

11) Marilyn Revell Delong 저 금기숙 역, *The Way we Look*, (도서출판 이즘, 1997), p.5.



<그림 12> 이영희 '94f/w collection.

질의 특징인 평면 패턴과 바느질 테크닉을 활용하고 있다(그림 12).

2) 색 채

컬렉션에 제시된 색의 경향은 한국의 전통 색을 응용하는 것과 유행 색을 취하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이며 이에 더하여 디자이너의 캐릭터가 반영된 색의 선호가 발견된다. 그래서 색의 사용은 어느 부분보다 디자이너에 따라 각기 개성을 달리 하고 있다. 한국적인 느낌의 공통은 전통 색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때로는 한국의 자연 색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신우는 모노톤으로 침착하고 지적인 느낌이 주를 이루고 모시의 토속적인 느낌을 프리미티브한 감각으로 표현한다.

진태욱의 색채는 흑백의 베이지 컬러를 주조색으로 사용하면서 한국 전통의 소재인 삼베색의 베이지와 브라운 계열로 고유한 느낌을 전달하려는 일면이 있다.

백의 민족의 상징인 백색을 표현하여 한국적인 소박한 느낌을 전달하려는 의도는 홍미화의 작품에서 두드러진다.

이에 비해 이영희의 색상은 전통색을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다채롭고 변화적인 응용으로 비평가들

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승복의 회색을 이용하여 원색적인 느낌을 순화시키고 걸감에 비쳐지는 안감색과의 이중색의 느낌이나 칼라 그라데이션에 의한 환상적인 느낌은 소재의 질감과 조화시키는 표현으로 동양의 신비함을 나타내고 있다.

3) 소재

소재는 의복의 분위기를 나타내는데 효과가 있다. 같은 형태라 하더라도 재료에 따라 디자인의 이미지가 달라지므로 소재의 사용은 매우 중요하다.

이신우는 초기에 마와 면, 실크의 천연섬유와 한지를 이용하여 한국적 분위기를 표현하는 반면 비닐, 우레탄, 종이 등의 소재를 사용하여 한국적인 라인과 융화하는 디자인으로 소재의 시대적 트렌드 감각을 접목시키기도 하였다.

한국 전통 소재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려고 한 것은 특히 이영희의 작품에서 두드러진다. 실크와 모시가 주 소재이며 노방과 한복 소재의 무아래 표현이 특징이다.

특히 겨울용 토시와 조끼 또는 저고리와 마고자 안에 넣은 털이 약간 밖으로 나오게 하는 표현은 우리를 비롯한 몽고 등의 동양적인 특징이라 하겠다(그림 13).

그러나 이러한 한국적 전통 소재만으로 김착하지 않고 수입원단으로 서구적 취향을 디자인하여 파리 컬렉션에 처음 참가한 것은 진태욱이다. 그러나 이후 역시 한국적 디자인을 옹호하면서 실크와 니트, 울소재, 면과 마직을 이용하였다.



<그림 13> 이영희 '94 f/w collection.

이에 비해 흥미화는 일상적이고 자연스런 디자인의 특성으로 성근 면이나 마직과 같이 천연섬유를 중심으로 소박한 우리 멋을 나타내었다.

4) 문양

외국 컬렉션 작품은 무늬없는 직물이 대부분이지만, 문양 표현은 염색과 자수로 한국고유문양을 의도하고 있다. 이신우는 고구려 벽화의 해의 신, 달의 신, 용문양을 이용하기도 하고 진태옥은 미인도 문양과 도자기의 당초문양을 그대로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영희는 치마허리에 목단문양을 수놓아 화려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거나 색동표현을 부분적으로 하였으며 치적의에서 응용한 평문양의 드레스도 화려하다. (그림 14), (그림 15) 흥미화의 작품은 전통문양 뿐만 아니라 점문양과 스트라이프의 기하학적문양 등 패션 트렌드를 반영한 서구적인 느낌을 동시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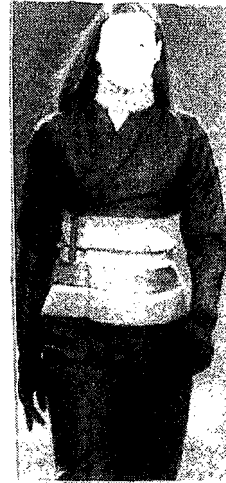
2. 세계 상품화를 위한 한국적 디자인의 방향

컬렉션에 제시된 초기 디자인은 한국적인 전통이 진하게 표현되었다. 한국을 알고자 하는 외교적 의미도 있지만 흔히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향토성을 내세운 개성창출은 세계 시장에서 신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유함도 변화 없이 대중화가 되어버리면 신선함이 사라지고 더 이상 눈길을 끌기 어렵게 된다. 즉, “한국적”이라는 고유한 민족적인 테마를 갖더라도 디자이너들은 각기 그들의 개성을 지닌 다른 캐릭터의 디자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앞서서도 밝혔진 바와 같이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공통적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가장 큰 이슈로 취하고 있다. 이는 컬렉션에 발표한 디자이너들이 서로의 것을 모방하거나 구분이 안되는 모호함이 계속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시간의 흐름과 함께 반복되는 발표회를 거치면서 더 이상의 매력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이 디자이너의 캐릭터로 세계시장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과제이다.

디자인은 순수 예술 작품 같이 감상적 가치로만



<그림 14> 이영희 '93,94 f/w collection.



<그림 15> 이영희 '95, 96 f/w collection.

존재하기보다는 팔리는 상품일 때 그 가치가 있다¹²⁾. 소비자가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외면한 디자인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한다¹³⁾. 시대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고 우리의 전통을 활용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캐릭터를 갖고 지속적으로 변신하여야 한다.

또한 상품의 실용화도 중요한 문제이다. 보여주기 위한 디자인에서 입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아이템

12) 최대석, *산업디자인학*, (홍익대학교 출판부, 1991), pp.30-60.

13) 김문숙 편저, *복식디자인의 실제*, p.109.



<그림 16> 비비안탐 '00s/s.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해외 디자이너 가운데 비비안 탐의 경우, 동양적 모티브를 띤 특수 소재의 의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그림 16) 우리 디자이너들도 전통적 소재에서 벗어나 특수 소재를 이용한 작품개발이 이루어지는 것도 상품개발에 있어 필요하다. 다행히 1990년대 초기보다 점차 국제적인 분위기를 흡수한 실용 작품이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예로 이신우의 '99 s/s 티셔츠는 첨단 소재에 용문양으로, 전통과 미래적인 느낌이 조화된 실용성 있는 상품이다.

V. 회화의 조형성과 한국적 요소를 응용한 작품제작

1. 작품제작 의도 및 방법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회화양식은 의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디자이너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분야이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 사실적 묘사에 주력하는 전통화법에서 벗어나 작가의 내적 표현을 위주로 하는 20세기 전반부 회화의 영향을 받은 패션에 주안점을 두어 한국적인 모티브를 활용한 자유롭고 독창적인

캐주얼 웨어를 개발하고자 한다.

추상미술로의 창조와 발전에 기여한 20세기 전반부의 미술 사조는 대상의 형태 재현을 벗어나 자기 표현이 강조되는 조형적인 측면을 추구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패션에도 영향을 미쳐 자유롭고 개성화된 의상으로의 혁신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Art to Wear가 아닌 캐주얼 웨어로 회화의 조형성을 표현해 보았다. 그리고 각 사조의 대표적 화가의 회화에 영감을 얻어 국제화 시대에 세계시장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한국의 전통성을 활용하는 의상개발로 세계시장의 확대를 모색하고 패션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지닌 산업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작품 5점을 제작하였는데 각 작품의 제작 의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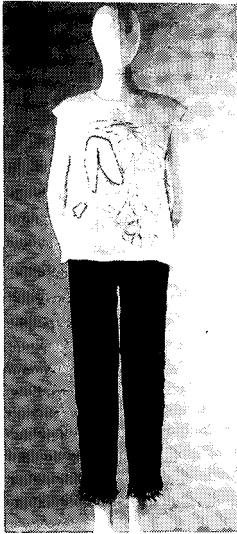
작품 1은 몬드리안 회화에서 보여지는 기하학적 연구성을 전통 보자기의 파이핑 기법을 사용하여 그 조형성을 표현해 보고자 하였다. 스커트는 한복을 응용한 현대적 랩스커트를 만들고 심장생을 치마단에 장식하여 전통미를 표현하였다.

작품 2는 입체주의 화가인 레제의 그림에서 보이는 단순한 외곽선의 표현기법을 검은색 파이핑으로 표현하고 전통이미지를 주는 소재와 장식물을 사용하여 트임을 강조하였다.



<작품 1>

<작품 2>



<작품 3>



<작품 4>



<작품 5>

작품 3은 야수주의의 대표적 화가인 마티스의 회화를 응용해 상의는 손흔질하고 박대비즈로 머리스타일을 장식하여 캐주얼한 느낌이 나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 여름 옷감인 모시를 사용하여 팬츠는 청바지의 느낌이 나도록 두줄 스티치를 하고 기능성을 주기 위해 엉덩이부분을 두겹으로 처리하였고 무릎에는 천을 바이어스로 누벼서 볼륨감을 주었다.

작품 4는 로버트 들로네의 회화를 포토샵에서 변형하여 연속무늬 시킨후 프린팅 작업을 하였다. 의복 구성에 있어서는 조선시대 의례복에서 보여지는 두꺼운 띠와 직선 재단법을 이용한 디자인으로 단순미를 살렸다.

작품 5는 회색실과 은사를 섞어 상의를 제작하고 그 위에 기하학적 문양의 비딩 작업을 하고 초현실주의 회화에서 보여지는 신체의 상징화를 나타내는 손을 장식하였다. 팬츠는 보라색으로 염색하고 한복 바지의 실루엣과 밑단의 여밈이 데님의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회화에 영감을 얻어 한국적 소재와 실루엣을 연관지어 캐주얼 웨어를 개발하였다. 작품의 전체적인 실루엣은 단순미를 살리고 평면성을 강조하였으며, 전통적인 소재와 장식을 사용한 한국적 현대 의상 디자인의 개발 가능성을 보

여주고자 하였다.

VI. 결론 및 제언

이상으로 20세기 전반기에 일어난 예술운동들을 알아보고 그것들이 현대 의상디자인에 미친 영향을 파악해 봄으로써 조형예술로서의 복식의 발전에 그 표현영역의 확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1900년대부터 시작된 현대 여성복류의 경우 기능적이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위한 캐주얼웨어의 발전과 확대를 알아보고,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한국적인 소재와 실루엣을 이용한 캐주얼한 의상작품들을 직접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세기 추상회화로의 과도기적 예술양식인 야수주의, 표현주의, 큐비즘의 다양한 표현방법 및 표현요소는 20세기초의 새로운 예술해방에 대한 분명한 제시로서 복식의 새로운 조형 예술적 표현을 가능케 했고, 그 이념은 복식조형의 혁신과 독창적인 패션디자인의 영감을 주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시대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둘째, 각 회화의 색채와 단순성에 모티브를 얻어 기능성에 근거한 의상 개발의 디자인을 펼치는데 있

어 과거의 예술 표현 방법의 다양하고 독특한 조형 요소가 나타났다.

셋째, 현대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전통 양식의 활용은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고 우리 문화에 대한 긍지를 고취시켜 국제무대에서 차별화 될 수 있는 한국 복식의 독창성과 창조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창조의 영역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넷째,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은 현대 패션을 알아보고, 현대 패션의 흐름을 캐주얼 웨어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오늘날 예술의 미적 표현 기법의 가능성, 기능성, 독창성이 미래의 패션을 예측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상으로 20세기 전반기에 나타난 회화들의 기본 이념과 표현방법 및 표현요소는 동시대는 물론이고 현재의 패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고, 그것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에 한국적인 소재와 실루엣을 가미한 의상제작을 시도함으로써 한국적 이미지 창출로 국제화 시대에 세계시장에서 차별화 할 수 있는 의상으로 발전시키려 했다.

그러나, “한국적”이라는 고유한 테마를 갖더라도 국제 감각이 바탕이 되지 않은 한국적인 것만으로는 장기적인 시장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문제점을 본인은 후속으로 남기고자 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김현화(1999). *20세기 미술사*. 서울 : 한길아트.
- 로즈메리 램버트. 이석우 역(1987). *20세기 미술사*. 서울: 열화당.
- 오광수(1976). *서양근대회화사*. 서울 : 일지사.
- 이승조. Dufy(1982). *세계의 미술 40*, 서울 : 서문당.
- 허동화(1988). *옛 보자기*. 한국자수박물관 출판부.
- 세계대백과사전(1985). 서울, 학원출판사.
- 세계예술대백과(1975). 미술. 서울: 문원출판사.
- 데이비드 파어퍼 편(1995). *미술의 이해3*. 서울: 시공사.
- Marilyn Revel Delong. 금기숙 역(1997). *The Way we Look*. 서울: 도서출판이즘.
- Hom Marilyn J(1975), *The second skin*. Boston:Houghton Mifflin Company.
- Contini Mela(1977), *5000years of fashion, secaucus: Cjartwell Books Inc.,*
- Ewing Elizabeth(1974).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 London.
- Martin Richard(1987), *Fashion and Surrealism*, Rizzoli.
- 공경화(1987). “20세기 미술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자(1999). “해의 컬렉션 작품의 세계 상품화를 위한 디자인 탐구”, 서울; 숭의논전 제23호.
- 박경순(1977). “현대여성복이 캐주얼 웨어로 변화되어 가는 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화(1992). “20세기 전반기의 회화를 활용한 현대의상 디자인 연구”, 서울: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은(1998). “20세기 미술사조와 현대의상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명희(1990). “야수주의의 영향을 받은 현대의상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성혜(1990). “미국 스포츠웨어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제 15호.
- 정홍숙(1989). “조형분야와 복식에 나타난 예술양식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 *복식*, 제 13호, 한국복식학회.
- Mode 1900~1999.
- 20000years of fashion